

# 예레미야애가 개관

## 1. 개요

예레미야애가(애가, Lamentations)는 예루살렘 멸망(기원전 586 년)의 비극을 배경으로, 그 폐허와 절망을 노래한 시적인 애가 다섯 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.

이 시들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, 민족 전체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며,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.

히브리 성경에서는 케투빔(성문서)에 포함되며,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아브월 9 일(티샤 베아브)에 이 책을 낭송합니다.

## 2. 저작 연대

-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직후, 즉 기원전 586 년 이후 곧바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이 시점은 유다 백성이 극심한 충격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던 시기이며,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통곡이 필요했던 때입니다.

## 3. 저자

- 예레미야가 저자라는 전통적 이해가 강력합니다. 히브리어와 문체, 주제 연관성, 그의 “눈물의 선지자”적 사역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.
- 헬라어 70 인역(LXX)과 히브리 전승에서도 예레미야의 이름이 애가와 연결되어 전해집니다.

---

## 4. 기록 목적

-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.
  -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식시키고,
  -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함.
  - 공동체가 공적 예배 안에서 죄를 애통하고 회복을 간구하도록 인도합니다.
- 

## 5. 단락 구분 (총 5 장)

장	특징	문학 형식
1장	예루살렘의 외로움과 멸망에 대한 탄식	알파벳 시
2장	여호와의 진노와 성전 파괴	알파벳 시
3장	시인의 고난, 회개의 기도, 소망의 고백	알파벳 3배 시(66행)
4장	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과 지도자들의 죄	알파벳 시
5장	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간구	비알파벳 시 (기도 시 형태)

※ 알파벳 시란, 히브리어 알파벳(22 자) 순서에 따라 시작되는 운문 구조입니다. 이는 기억과 묵상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.

---

## 6. 중심 메시지

“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.” (애 3:22)

애가의 심장부는 바로 3 장 21-33 절입니다.

이 절망의 계곡 속에서도 시인은 **\*\*하나님의 인자(헤세드)\*\***와 **\*\*공휼(라하임)\*\***을 기억합니다.

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이지만,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며,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소망이 선포됩니다.

---

## 7. 신학적 이슈

### ① 죄와 심판,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

- 예레미야애가는 단순한 정서적 슬픔이 아니라, **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백**이 전제된 슬픔입니다.
- 성전, 제사, 왕권이라는 **언약적 질서의 붕괴**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입증합니다.

### ②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

- 하나님의 진노는 한 순간이지만, **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**(애 3:23).
- 하나님의 성품**은 단죄보다 회복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

### ③ 고난의 교육적 목적

- 고난은 **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여 회복시키는 수단**입니다.
  -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이 고난을 통해 **자기 성찰과 영적 회복**을 경험하게 됩니다.
- 

## 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예레미야애가 해석

### ① 언약적 틀 안에서의 해석

- 예레미야애가는 언약 백성이 **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** 보여주는 책입니다.

- 그러나 동시에, 언약의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

## ② 공의와 자비의 조화

-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. 애가는 그 십자가를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.

## ③ 그리스도 중심적 예표

-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신 성 예루살렘과 겹치지며,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죄로 무너진 인류의 대표가 되어 애가를 대신 부르신 사건으로 연결됩니다. (눅 19:41-44, 마 23:37)

십자가 위에서 애가의 절규가 완성되었습니다.

"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!"는 죄의 땅에 울려 퍼진 최종 애가이며, 동시에 구속의 찬송의 서곡이었습니다.